

강론 ...

약 좋다고 남용 말자



송영진 신부
(줄포선교 주임)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갈라졌던 언어가 오늘 오순절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의 말씀을 전했고, 저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두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 일치의 영입입니다. 획일주의가 아닌 다양성 속의 일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반대로 분열은 악령의 일입니다.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마음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서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악령이 원하는 일을 돕는 것이 됩니다. 자기는 소신이라 우기지만, 그게 자기만의 독선과 옹고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습시다.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나에게 예언직 사명이 있다면, 의견이 다른 상대방도 성령을 받았고, 그에게도 예언직 사명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저마다 자신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언직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배척하고,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고, 자기 혼자만의 신념과 사상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즉 거룩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세상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약이 좋다고 남용하지 말고, 약을 모르고서 오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된 기도와 깊은 성찰, 묵상도 없이 그저 자기 개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성서말씀을 인용하고 성령을 내세우고,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서는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 겸손, 순종, 평화는 성령의 식별 기준입니다. 반대로 교만, 완고함, 불순종, 혼란과 분열, 불안은 악령의 징표입니다.

숲머리 생각

주님의 성령이 온 누리 모든 이에게 ...



문정섭
(베드로)

해방의 선포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페르샤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 아훼께서는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누구든지 원하는자는 돌아가라.” (역대하 36,23)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감격의 현장에 있다는 것은 은혜스러운 일이다. 절망이 아닌 해방을 맞는 기쁨이라면 두말할 것이 없다. 역사의 흐름을 다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다. 하지만 역사적 환희를 맛보는 행운도 때로는 있으니 타고난 시운도 중요하다. 해방의 선포가 당대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심원한 섭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시련의 급류보다는 위로의 물줄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빌론의 유배생활을 시작한지도 두 세대가 지났다. 남 왕국 유다마저 하느님께 버림을 받고 이국 땅에서 참회와 고역의 나날을 지냈다. 하느님을 배반하고 계약을 깨뜨렸으니 할 말은 없으나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은 하느님 뿐이시다.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이 흘러 나와야 사람은 제정신이 든다. 잘못과 통한의 슬픔을 토해낼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빛을 맞이할 수 있다. 멸망의 순간이 눈앞에 선한데 세월은 빨리도 지나갔다. 부모와 조상들이 맺은 하느님과의 계약이 그리도 무서운가 보다.

하느님 백성을 멸망시킨 바빌론이 무너졌다. 새로운 왕국

의 등장으로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 하지만 포로의 백성에게 달라질 것은 없다. 유배라는 저주의 사건을 돌이키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런데 새로운 통치자 고레스가 엄청난 칙령을 선포한다. 유배된 백성들은 모두 돌아갈 수도 좋다는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까지도 부르며 그가 받은 소명을 밝힌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 아훼께서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우셨다.”

해방의 선포가 이방 왕의 칙령을 통해 나왔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어찌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랴. 더우기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다. 하고자만 하시면 이방인도 부르시고 적국에서도 구출해 내신다. 해방의 감격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다. 이를 알았거든 만사를 제치고 고향으로 향할 일이다. 잃었던 성소를 찾아 쓴살같이 달려갈 일이다. 인생에 이런 때보다 더 기쁜 날은 없으리라.



입당송 지혜 1,7

온 세상에 충만하신 주님의 성령께서는 만물을 총괄하시는 분이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아시도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1-11

화답송 시편 104(103), 17과 24과 29-30, 31과 34
(◎ 30참조)

◎ 주님,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1코린 12,31-7.12-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사도 2,4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였도다. 알렐루야.

신선놀음과 도끼자루

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내는 말의 성찬과 장밋빛 공약으로 국민들을 환상에 젖게 한 5.31지방선거가 예상했던 대로 야당의 압승과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렇게 해서 1997년 보수야당에 의해 이루어진 정권교체가 낙제점을 받고 지방에서부터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첫 정권 교체에 무던히도 감격하고 흥분하고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5년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2002년 대선에서는 90%라는 압도적 지지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켜 한 많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개혁을 고대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도 폐지를 약속한 국가보안법은 여태껏 글자 한 자 고치지 못하였다. 농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제 외국쌀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을사보호조약보다 더 해롭다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도 머지않았다.

그뿐 아니다. 국제투기자본이 강요한 신자유주의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여 알짜기업은 해외로 넘어가고, 구조 조정과 정리 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백수들이



거리에 넘쳐난다.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고 비정규직이 8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한바탕 꿈이었다. 정권교체로 한 많은 서민들의 눈물이 마를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 개발과 성장으로 떡을 더 크게 만들자고 다그치면서 정작 나눌 생각은 하지 않는 보수 정당끼리의 정권교체는 서민들의 한과 눈물을 더 많이 하였다.

정치에서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월드컵에서 희망을 찾으려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8강을 넘어 4강으로 간다 한들, 아니 결승에 올라 우승컵을 거머쥘 서민들의 삶이 달라질까?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광고비로 42억원을 책정하였다. 그것도 전 국민이 온통 월드컵에 매달리는 6월에 쏟아 부으려고 한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썬 줄 모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6월이다.

김인봉(대건안드레아)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전시회 소개 - 예술로 승화시킨 다큐멘터리 사진 전시회



루마니아 집시, 낭트, 프랑스, 1992

◀김중만, 성남훈 사진展 슬픈 눈 맑은 영혼, 내일을 열다

—숨은 현실을 드러낸
다큐멘터리 사진을 예술로 승화—

수많은 설명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느끼게 합니다. 한장의 사진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꿈과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삶에서 잊혀지고 우리 곁을 떠난 영혼들을 만나게도 해줍니다.

또한 한 장의 사진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한 묵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이웃과 세상과 화해하며 하느님을 만납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피정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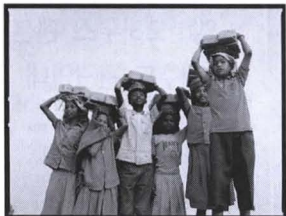
코렘(korem) 캠프의 피난민들, 에티오피아, 1984

▲세바스티앙 살가도展 절망에서 희망으로

을 안내합니다.

단순히 숨은 현실을 고발하는 비참한 사진들이 아닙니다. 비참함을 끌어 안은 아름다움의 힘, 그리고 모두를 끌어 안고 화해시키는 사진전시회에 가시기를 권고합니다.

(서석희 홍보국장 신부)



비라트나가르, 네팔, 2004년 11월 13일

기간 : 5월 4일~6월 25일
장소 : 전북도립미술관



● 나운 2동 성당 선교를 위한 특별 9일 기도



나운 2동 성당(주임=이영우 신부)은 오는 6월 11일 예비 신자 입교식을 앞두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고 선교 활성화화를 위한 '선교를 위한 전신자 특별 9일 기도'를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매일 밤 9시에 열었다.

찬양과 울동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봉헌된 예비 입교자들을 위한 목주기도와 성령기도 그리고 말씀묵상과 신앙과 선교에 대한 평신도들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 9일 기도는 30일(화) 본당신부님의 안수와 파견으로 마무리 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하느님의 생명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다”는 선교 사명으로 모인 본당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하여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아름다운 선교사’가 되기를 다짐했다.

나운 2동 성당은 지난 3월부터 선교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선교 교육 및 아파트 중심인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물 부착 그리고 기도모임 활성화화를 통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인라 기자]

● 지곡 성당 혼인갱신식

지난 5월 28일(주일) 지곡 성당(주임=김혁태 신부)에서 혼인갱신식이 교중미사 중에 있었다.

6쌍의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약속을 하느님 앞에서 확인하고 살아있는 날들에 대하여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이 예식을 치렀다.

주임신부는 강론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십자가 위의 옆구리 상처를 통하여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부부들도 서로에게 몸과 피가 되는 사랑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자”고 당부 하였다.

갱신식은 반지교환과 교황님의 혼인 갱신 강복장 전달, 부부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영상물 감상 그리고 성가 대의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수 기자]

● 군산지구 중·고등부 연합 체육대회



지난 5월 28일(주일) 군산대학교에서는 군산지구 중·고등부 교리교사 연합회(회장=신정경) 주관으로 중·고등부 연합 체육대회가 열려 군산지구 학생들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화합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었다.

농구, 발야구, 피구 등 구기 종목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300여명의 학생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체육대회 결과 조촌동 성당이 우승을 차지했고 오룡동 성당과 옥봉 성당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신정경 연합 회장은 “본당 신부님들이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은 각 본당의 지도 신부님, 사목회 임원, 어머니 등 이 학생들과 함께했다.

[김용운 기자]

정수기, 롤러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빌려드립니다

웅진코웨이 렌탈하우스

점장 : 김영숙(비비안나) 유명희(올리아)
롯데백화점 옆 매장 오픈
274-3672~4 / 016-602-6057

ÉDUCARE

EDUCARE SI LTD
뉴질랜드 현지학교 4주 프로그램
대상 : 초, 중, 고생
기간 : 7월 22일~8월 19일
가격 : 270만원(항공권 별도)
은 이삭(이사원) 011-9476-2421
www.educare-si.net

28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 마신부님(Rev. Brendan MacLale)

대학생 : 6/25~8/13(7주) 599만원

초·중생 : 7/25~8/15(3주) 399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남문문구도매센터

(교우분들 특별할인)

문구·사무용품·대형마트식 매장
주차장 완비, 배달 가능

대표 원수관(야고보)·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옆
☎(063)283-3352 / H·P 011-652-7721

백 마익스프레스

• 포장이사·일반이사·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정환(마르크)·인정미(프란치스카)

☎(063)253-2452, H·P 019-678-2486
080-050-2482

고급 생선(도매, 소매)

100번 수산

이복동(마테오) 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공판장내

227-7877 / 011-652-8045

엠마오하우스 펜션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도 관광오시는 신자여러분의 여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차량 및 호텔, 펜션, 민박)
문의 : 010-4733-5005,
064-752-6159

대표 : 좌순옥(가밀라)/고세영(영주 바오로)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시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이관재

☎ 228-6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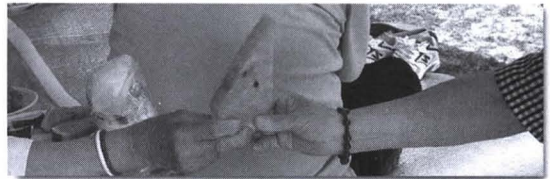
● **쌍교동 성당 비료 북한보내기, 독거노인 돕기**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 신부)은 지난 5월 27일(토) 사순기간 중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단식과 극기, 희생을 전신자들이 실천하여 모아진 정성으로 북한 비료보내기(정의구현사제단) 50만원과 지역사회 독거노인 10명에게 쌀 20kg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장인식 기자

● **용머리 성당 어른신 나들이**



용머리 성당(주임=김영수 신부)은 지난 5월 24일(수) 사회복지분과, 은빛분과, 대전회의 봉사로 본당의 어른신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신 155명을 모시고 섬진강 물길따라 남원과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 평사리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모처럼 바깥바람을 쐬어 기분이 들뜬 어른신들은 봉사자들의 사랑과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홍보국 정리

삼례 성당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마련 바자회



삼례 성당(주임=이재후 신부)에서는 지난 5월 28일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새교구청 신축기금마련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는 사목회(회장=강영만)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단체 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본당신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치와 화합이 되는 자리 가 되었다.

주임신부는 “우리 본당에서는 매년 야외로 나가 복음

을 선포하는 행사를 했지만 이번 주님승천대축일은 뜻깊은 행사로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마련 바자회를 본당에서 열기로 하였다”며 “전주교구의 숙원사업인 가톨릭센터 신축기금을 현재 70%이상 납부하였지만 공사관계상 신립금액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농촌본당에서 추가신립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신축기금 마련 바자회를 열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시어 이번 바자회를 위해 도움을 주신 내, 외빈과 그리고 모든 교형자매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이날 바자회는 평소 얼굴만 알았지 본명을 잘 몰라서 이름표를 착용하고 전신자들이 본당 잔치로 서로 친교를 이루었다.

|최경호 기자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참 편한 통증의학과

백승(시문) / 조경아(베로니카)
☎ (063) 246-8377
위치 : 인후동 안골사거리
국민은행옆 KTF 2층

제주 성이시돌 피정

일시 : 8월 22~24일, 9월 2~4일,
9월 20~23일
장소 : 제주 성이시돌 목장내
신청 : 02-773-1455
지도신부 : 임피제 파트리치오 신부

공소 생활집 안내
(입실성당 관촌공소)

- 공소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싶으신 가족 환영!
- 관촌면 소재지에 속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함 (전주에서 20분 거리)
- 무상제공(연락처 : 입실성당 643-3661, 관촌공소 회장 642-0029)

패적인 입원실, 물리치료실
<의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루파엘), 이정미(글리나)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알리안스 웨딩홀옆)

CT / 초음파 / 유방 / 갑상선 검사
전북 방사선과.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검진 2.암검진
호자동 국민은행 3층(228-6060)
원장 : 임여섭(루치아), 송하숙(아고보)

2006년 여름 성음악 연주

일시 : 8월 18일(수) 오후 2시~19일(토) 오후 4시(8박 4일)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부천시 역곡동)
내용 : 전례화, 그레고리오 성가, 오르간, 발성, 합창지휘등
강사 : 박대중 신부, 최효영 신부, 홍인식 수녀의 전문가
연수비 : 20만원(5월까지 입금시 10% 할인) 청년은 15만원
입금계좌 : 311-1010242-02-0000우리은행 박재광
후원 : 가톨릭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문의 : 02-3273-8878 한국 세실리아 성음악협회 사무국
www.cecilkorea.com.ne.kr

익산 효성고등학교

2006학년도 신입생모집 /
인문계 남 · 여공학 180명
원서접수 : 원서접수순 마감
입학상담 : 063-858-9831~3
전영길 · 박경례(소화대레사)



교구장 일정

• 교리교사의 날

6월 6일(화) 여산성지~천호성지
도보 성지순례

• 교리교사의 날 미사

6월 6일(화) 오후 2시 30분

• 견진

6월 7일(수) 전주교도소 오후 2시

• 이주사목 국내대표 사제회의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C.C.K

• 신학교 이사주교 간담회

6월 9일(금) 오전 11시

• 견진

6월 1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덕진동

미사 · 행사 · 모임

• 교구성직자 위령 월례미사

6월 5일(월) 오전 11시

• 교구 사회복지위원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례미사

6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재경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6월 5일(월) 오후 2시

• 교리교사의 날

6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여산성지~천호성지 도보성지순례

• 예비신학생 월모임

6월 11일(주일) 오후 1시 30분 윤호관

• 서전주 하나회 미사

6월 11일(주일) 오후 2시 삼천동

• 제3회 천주교 전주교구 직원

(교구청직원, 사무장·원) 체육대회

6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해성 중·고 체육관

문의 : 교구청 직원 친목회장 소권수

285-0041, 010-9017-1579

사무장(원) 연합회장 하석수

858-4721, 017-651-7437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전주교구 평신도 정진운동
6월 10일(토) 오전 9시 30분 윤호관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단원 교육

6월 5일(월) 창인동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2단계
(전주지역, 김정교부, 임순남무진장지구)

6월 7일(수) 오후 2시 삼천동

• 새사제 연수

6월 8일(목) 오전 10시 센터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교육 2단계
(군산지구)

6월 8일(목) 오후 2시 나운동

• 천호피정

6월 8일(목) 오전 10시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2단계
(익산 남·북지구)

6월 9일(금) 오후 2시 영등소라

• 묵상 관상기도 피정
6월 8일(목) 오후 2시 복자성당 병인관
문의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기타

성전신축 한마음 큰잔치(도통동 성당)

6월 8일(목)~10일(토)

문의 : 631-0091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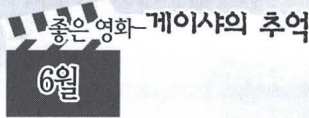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후원사업

주간보호 어르신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
주세요

후원계좌번호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전북은행 541-13-0311676

문의 : 232-0334



실화영화. 게이샤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 온갖 역경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영화. 일본의 '게이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일시 : 6월 7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44분



문화의 향기

명화로 보는 성모님의 생애 / 역사 길기문 / 그림 브라더버트 / 바오로 말 / 16,000원



이 명화집은 성경과 전승, 외경을 바탕으로 성모님의 생애를 여인적인 섬세함, 은은하면서도 우아한 색깔, 꿈결 같은 감미로움, 풍부한 내적 영성의 표현이 담긴 성화로 구성되어 있다. 성모님의 생애를 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 그림은 보는 이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한다.

2006 예수수도회 성소모임(익산)

일시 : '6월 11일(주일)

주제 :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장소 : 성모병원(익산)

문의 : 010-7250-7049

예수수도회

제11회 성체현양대회

일시 : 6월 24일(토) 오전 10시

장소 : 지명자산 성지 광장

주제 : 이병호 주교 / 감사 : 권민자 수녀

주제 :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천주교 전주교구 지속적인 성체존재 봉사자 협의회

착한목자 수녀회

착한목자 관상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6월 11일 오후 2시~5시

장소 : 조촌동 천주교회

문의 : 019-299-0533

비고 : 착한목자관상 성소모임도 함께 합니다.

작은예수수녀회

성소모임

주제 :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

일시 : 2006년 6월 11일 오후 2시

장소 : 수녀회본원

문의 : 02-462-7970, 011-9939-7970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희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사목회장: 김기영

◎ 15년의 염원!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봉헌!

“성전신축 기금마련 한마음 큰잔치”

- 일시: 6월 8일(목) ~ 10일(토)
- 장소: 도통동 성당 신축 건물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사목회장: 김원태

- ◎ 성서읽기: 6월첫째주일: 느헤미야기5장-13장
- ◎ 본당50주년 목주기도 봉헌: 금주-2,800만 계143,264단
- ◎ 본당설립50주년 행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전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신자 주소록편찬 광고 봉헌하실분 신청바랍니다
- ◎ 성당청소: 6월10일(토)-다양1,2반
- 1. 모임: 사목회-교중미사후
- 2. 금주전례: 해설-백희옥, 독서-최승용, 함은화 봉헌-황점수, 유계남, 기도-이용석 부부
- 3. 차주전례: 해설-김연홍, 독서-김희석, 김은경 봉헌-정광옥 부부, 기도-박진숙, 이정은
- 지난주 봉헌금: 907,400원 ■ 교무금: 995,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윤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사목회장: 정윤열
홈페이지: www.sccatholic.net

-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 1. 금주모임: 여성분과, 요점회-미사후, 구역장모임-7(수)미사후
- 2. 차주모임: 안나화-미사후
- 3. 금주전례: 교중해설-양혜숙, 독서-문정자 정윤열
- 4. 차주전례: 교중해설-문정자, 독서-임은선 김호진
- 5. 청 소: 금주-착한의견의 어머니Pr. 차주-가정의 모후Pr.
- 6. 차량봉사: 금주-4조 차주-5조(안전운행)
- 지난주 봉헌금: 860,910원 ■ 교무금: 1,355,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필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사목회장: 양정석
홈페이지: http://www.ssanggyo.org

- ◎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성령송가).
- ◎ 주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소풍 -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모임안내: ①청년회 - 4일(일) 후 5시
②구역(반)장 모임 - 6일(화) 전10시30분
- 2. 유아세례: 14일(수) 저녁미사 중 -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3. 예비자 교리(마리아 수녀님 반): 27일(화)부터-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4. 요한회원 모집: 만 35세 ~ 50세이하 성인남자 -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5. 성경 통독: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준비물 - 성경책과 필기도구.
- 6.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132,170단
- 7. 가톨릭센터 신축현금 신입 납입액: 권봉애-20만(20만), 박덕순-36만(15만) 심순임-12만(8만), 김옥남-12만(5만), 장현주-36만(17만), 이순덕-30만(30만) 총 신입액 - 152,975,000원, 납입액 - 84,830,000원
- 8. 감사헌금: 강경숙 - 5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653,650원 ■ 교무금: 2,339,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김태운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사목회장: 김길용
인들광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6월은 예수성신성월입니다.
- ◎ 105년사에 들어갈 레지오 및 각 단체별 사진 모집합니다.
- ◎ 본당일남 행사에 수고해주신 대건회 임원님들과 협찬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모임: ① 4일(일) 꾸리아, ② 6일(화) 구역반장, ③ 7일(수) 안나, 아브라함
-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사목회장: 변용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166,245단
2. 성서를 통독합시다.
3.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4. 6/11 야외미사: 삼일동산 오전10시, 우천시 성당
5. 성모의 밤 행사 때 바친 봉헌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6. 병자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7. 금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전찬열, 김순자 차량봉사: 김옥기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8. 차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박대규, 김양래 차량봉사: 전찬열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사목회장: 신태근

- ◎ 본당설립 50주년 기념행사: 10월 29일(주일)
- ◎ 오늘은 만남주일이며 교무금, 성소 후원금 봉헌의 날입니다.
- 1. 공소미사: 강덕 - 차주 후 7시 30분, 신평 - 7일(수) 후 8시
- 2. 본당설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자료모음: 사진 및 기타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 3. 선지회 (50대 남성) 첫 모임: 6월 6일(화) 후, 8시 분도관
- 4. 감사헌금: 배귀자(안나) - 5만원
- 5. 모임: 꾸리아 - 오늘 교중미사 후
- 6. 차주전례: 해설 - 윤영자 독서 - 이태현 부부 봉헌 - 최명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65,500원 ■ 교무금: 660,000원
- 2차헌금: 2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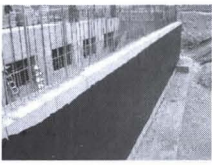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정승연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사목회장: 이상화

- ◎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삼교신자 초대주일
- 1. 예비신자 환영식: 오늘(4일) 주일미사 중
- 2. 구역장 공소회장 모임: 오늘(4일) 주일미사 후
- 3. 기도 목성회: 오늘(4일) 주일미사 후
- 4. 본당 울드레야: 8일(목) 저녁미사 후 교육관에서
- 5. 반모임: 9일(금) 저녁 중동, 북동, 월강, 북실 구역
- 6. 다음 주일: 삼위일체 대축일, 애령봉사회, 성모회
- 7. 가톨릭센터 신축 성금: 이영철, 김세진, 염문오, 익명, 김덕자, 김정자
- 지난주 봉헌금: 568,800원 ■ 교무금: 40,00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사목회장: 박동표

- ◎ 성지순례(5월28일)와, 성모의 밤(5월31일)행사에 봉사, 수고,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6월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성신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입니다.
- ◎ 수녀님 휴가: 17일까지
- 1. 사목회: 7일(수) 저녁미사후
- 2. 성체강복: 8일(목) 저녁미사중
- 3. 금주공소미사: 수분, 차주참석공소: 변암
- 4. 금주해설: 김호준, 차주: 박덕순
- 5. 금주독서: 이경준, 이은정, 차주: 이범수, 신지원
- 6. 금주봉헌: 나명조, 신지원, 차주: 박동표, 박덕순
- 7. 금주차량봉사: 김철수, 차주: 정용석

- ④ 11일(일) 이명서 베드로회
- 2. 6월 6일(화) 교리교사의 날 행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3. 금주봉헌: 강길량 미카엘 부부, 차주봉헌: 송재인 안드레아 부부
- 4. 성당청소: 평화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293,000원 ■ 교무금: 2,350,000원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5월 27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5,578,597	37.19%
사제단	1,000,000	815,431	81.54%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462,496	30.83%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7,078,332	39.32%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옥봉, 임실, 고창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고산, 진안, 인후동, 황등, 서학동, 장계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50%이상 납부한 본당 : 금암, 중앙, 둔율동, 오룡동, 월명동, 나바위, 여산, 용안, 신평, 신태인, 복자, 대야, 나운2동, 함열, 시기동, 수류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40%이상 납부한 본당 : 봉동, 소양, 서신, 용머리, 화산동, 덕진, 팔복, 상삼례, 솔내, 숲정이, 나운동, 조촌동, 팔마, 신동, 영등동, 금마, 원평, 순창, 쌍교동, 무주, 장수, 송학동

▶ 6월 5일 환경의 날 담화문(요약) ◀

화석 에너지에서 신 재생 에너지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6세 교황께서는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서 “인간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다. 병의 원인은 자연 자원이 감소되었고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한 데에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간의 형제적 사랑의 유대가 끊어진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66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1967.3.26.)에 선포하신 이 예언은 적중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세계는 각종 자원(숲,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지하 광물 등)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석유 자원의 감소는 전쟁과 분쟁, 지역 이기주의와 경제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수입 세계 4대 국가인 우리나라는 석유 파동 위기에 대해서, 정부나 사회가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량은 110일 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때문에 석유 수급에 차질이 생

기거나, 석유 값이 폭등한다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대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조금도 허점이 없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민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우들은 에너지 절약을 모범으로 보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집 한 채 없으셨지만 행복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역시 더 많이 소유함으로,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함으로,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작고, 검소하고, 절약함에서 오는 기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며 본당 안에서, 생활 안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06년 6월 5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